## 투데이 칼럼

# 세계 한인의 날에 즈음하여

고 재 흠
수 필 가

대한민국 국민이 집단으로 미국 영토 하와이에서 살기 시작한 것은 고종황제의 윤허로 대한제국 발행의 집조(執照여권)를 지참하고 이민 오면서부터라고 한다. 하와이에 한인들이 오게 된 것은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주협회, 주한 미국 공사 앨렌과, 그리고 동서개발공사 사장 데슬러 등이 노력한 결과이다.

이민이 성사될 수 있었던 전제 조건은 1882년 5월에 체결된 조미수호통상조약으로 조선과 미국과의 교류가 시작될 수 있었으며, 이를 계기로 한인들이 미국 땅에서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민 첫 배인 갤릭호로 102명의 한인이 1903년 1월 13일에 호놀룰루 항에 내리게 되었다. 이들 중에는 인천 내리교회 (용동교회 혹은 제물포 웨슬레안 교회로도 알려짐) 교인들을 위시하여 경기 서부지방의 교회 교인들이 많았다.

그들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반노예 생활하며 흘린 피와 땀은 지금의 발전된 한인커뮤니티의 초석이 됐다.

매년 10월 5일은 세계 한인의 날이다. 세계 180개국에 흩어져 있는 재외동포는 700만 명을 헤아린다.

남북한을 합한 인구의 약 10%다. 화교(華僑)수가 5000만 명이라지만 중국 인구(13억 명)의 4%에 불과하다. 본국 인구 대비 재외동포 비율로 보면 한국은 이스라엘과 더불어 세계 최고 수준이다. 화교는 동남아, 유대인은 북미와 동유럽에 밀집해 있는 반면 한인 재외동포는 미국(209만 명)·일본(90만 명)·중국(244만 명)·러시아(독립국가연합 기준 53만 명) 등 4개국에 80%가 몰려 있다. 숫자만 놓고 봐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의 '코리안 커뮤니티'가 세계 4대 강국에 고루 포진해 있는 셈이다.

당연히 이들은 한국의 소중한 자산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계화시대에 한국이 세계화 주류에 편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최적의 길은 바로 이 해외동포들이 삶의 현장에서 배우고 체험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다.

많은 한국인들이 한국과 연관이 가장 많은 미국과 일본을 잘 아는 것처럼 나서나 이들 나라의 실제 모습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미국인들은 사건의 핵심과 공평성을 중요시하며 이를 우선하는데 비해 한국인은 의리와 인간적인 관계를 중요시한다.

그러나 미주동포는 미국이 중요시 하는 것과 한국인 특유의 감성을 잘 조화할 수 있다. 그래서 해외동포가 바로 실무협상의 적임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한국 내에서 해외동포들의 위상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모국에 대한 동포들의 관심이다.

새로운 나라에 완전히 동화하는 것은 이민 3세나 되어야 가능하다고 한다. 이민 1세대는 아무리 애를 써도 완전한 캐나다·미국 사람이 될 수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무리 외면하려 해도 한국에 대한 관심을 끊기가 힘들다.

드라마와 영화 같은 대중문화 즐기기는 말할 것도 없고, 한인들 대화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 또한 한국 이야기이다.

지금 한국에서는 50년 전의 한국인의 생활풍습도가 자취를 감추어진 상태인데 중국 연변의 조선족 마을에 가면 잊혀진 우리 문화생활과 옛 감성이 일부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것을 볼 때 귀중한 문화유산 보유자들이기도 하다. 매년 한국에서 2세들을 위한 여름학교, 세미나 등이 열리고 해외동포들이 자녀들을 모국에 보내는 최근 추세는 애국을 하는 또 하나의 자세이기도 하다.

한국을 잘 아는 해외동포는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소개시키고 한국책을 번역해서 세계 도서계에 알리며 국제대회 때 좋은 통역관, 행사의 안내원, 상담자가 되는 역할도 하는 것이다.

해외동포들을 잘 활용할 때 세계를 한국의 품안에 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해외동포는 국가의 귀중한 자산이다.

글로벌 시대에는 민족 개념도 달라져야 한다. 배타적 민족주의는 더 이상 설 땅이 없다. 외국에 나가 살고 있으면 철저하게 그 사회에 동화(同化)되는 것이 옳다.

그렇다고 '뿌리'의 의미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문화와 역사를 통해 재외동포들이 뿌리의 정체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본국과 이들을 이어주는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윈-윈'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 독자제언

#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하여 현재까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적발되어도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 9월28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8항 "자전거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법률 규정에 의거하여 자전거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사고 불문하고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이면 2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그 동안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분명하게 "차"로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교통신호, 휴대전화 사용 등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운전자의 의식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하여 다가오는 28일 법개정에 따른 시행과 함께 단속과 처벌이 강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전거 운전자들은 첫째, 자전거는 차도를 이용하여야 하며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고 만일 도로 중간을 횡단하거나 역주행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로 처벌을 받게 되니 유의해야겠고 둘째,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신호에 따라 우측 가장자리로 횡단해야 하고 셋째, 횡단보도 이용하실 때는 자전거를 타지 말고 끌고 횡단을 해야 하며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경우에는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과 함께 강화된 항목이 운행시 운전자와 동승자의 인명보호장구 일명 안전모 착용의 의무화이다.

경찰이나 관련 기관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우선 안전한 사회와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자전거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 및 의식의 변화가 한층 요구된다 하겠다.

손용우 군산경찰서 중앙파출소 경위

##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 "김정은으로부터 받은 편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롯데뉴욕팰리스 호텔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 중 양복 주머니에서 김정은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꺼내 보여주고 있다.

## 사 설

# 도민 최우선 관심사는 먹고 사는 문제

전북도는 도민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겠다. 이번에 추석 민심 보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도민의 최우선 관심사는 먹고 사는 문제이다.

그런데도 우리 지역의 경제는 변화의 기미가 없이 늘 빨간불이다.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한데다 고용 환경도 열악한 탓이다.

전국에서 최악이라는 성적표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는데 난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도민들이 지금 전북도에게 주고 있는 말은 분명하다. 이 부끄럽고도 한심한 현상을 과연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이냐는 것이다. 전국 1위의 실업률이라는 성적표 앞에서 전북도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도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므로 추석 민심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겠지만 말이다.

전북도는 스스로 했던 말을 떠올려야 한다. 청년고용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한두 번 강조한 게 아닌데 달라진 것이 없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젊은이들을 위한 고용동향을 보면 여전히 희망을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전에 했던 말을 다시 해야겠다.

전북도는 지역 인재 고용의 사례를 많이 보여달라는 것이다. 현재 지역의 청년 고용 열기가 미지근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외환위기 이후 청년실업률이 가장 높다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반응이 둔한 탓이지싶다.

정말이지 이대로는 곤란하다.

고용 열기를 달구어야 한다.

전북도는 청년 실업의 현실을 총체적으로 보아야겠다.

비정규 기간제 일자리에서 불안해 하는 젊은이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괜찮은 일자리 창출은 한두 번 시도해보고 그만 둘 성질의 것이 아니다.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수도권으로 탈출하는 현상이 그 얼마나 계속돼야만 하는가.

전북도는 도민의 최우선 관심사가 먹고 사는 문제임을 항상 상기해야겠다.

#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발전 가속도 내야

익산 국가 식품클러스터에 대해 할 말이 있다. 보다 발전된 면모를 위해서 더 힘차게 뛰어야겠다.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만족스럽지 않다. 도민들이 본래 기대했던 것은 이런 모습이 아니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저번에 보도된 뉴스를 심상하게 여길 일이 아니다. 익산의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일반 산업단지 수준으로 전락할 위기라면 대처해야만 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익산시민들만의 것이 아니다.

도민들도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거는 기대가 크다. 전북 발전 현안 중에 그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그 위용을 드러내게 되면 익산시는 그만큼 발전돼 있을 게 틀림이 없다.

그리고 도내 농가들에게도 경제적 실익이 상당할 터이다. 그러므로 전북도와 익산시는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을 위해서 더 많이 생각을 보태야 하고 더 많이 마음을 써야만 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에 계속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이유가 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미래를 위해서변화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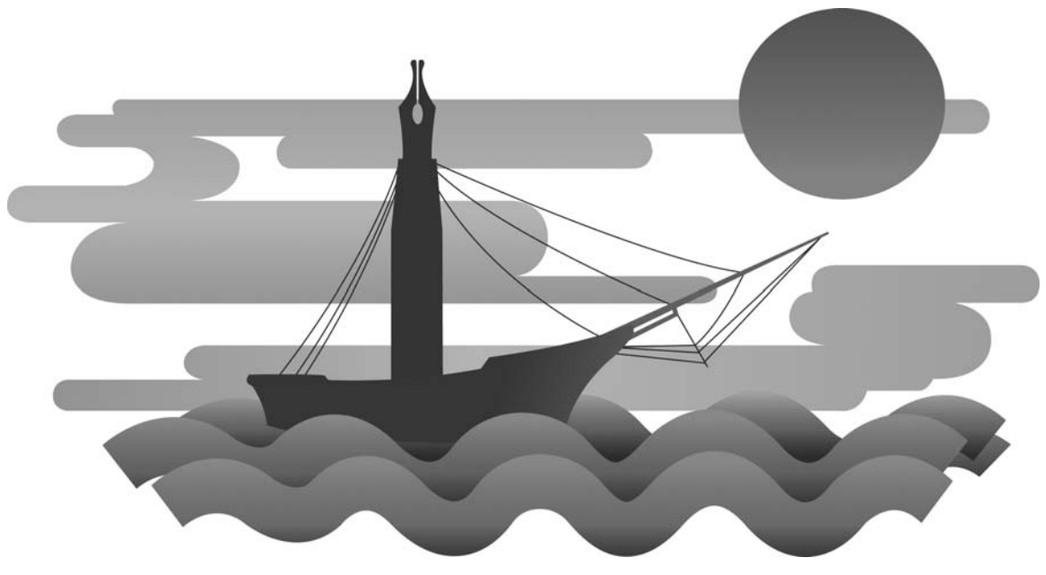
그리고 할 말이 더 있는데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깨끗한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다. 왕궁은 새만금 사업의 미래를 위해서도 만경강을 위해서도 변모돼야 하지만 식품 클러스터의 미래를 위해서도 변모돼야 한다. 혐오 시설을 그대로 두고서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먹거리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먼저 익산이 청정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뚜렷해야 한다.

전북도와 익산시의 능력 발휘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미래는 결정된다. 그 능력발휘는 빠르고 힘찰수록 좋다.

국가 식품클러스터에서 생산된 식품들은 소비자들이 예약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도민은 물론이고 전국민이 익산식품클러스터의 생산한 식품을 소비할 터이다.

그러므로 전북도와 익산시는 분발해야 한다. 도민들은 항상 그것을 바라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